



봉동초-전주교대부설초, 수업교류 활성화 '맞손'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와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교장 민환성)는 지난 28일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봉동초 장남덕 교장과 부설초 민환성 교장을 비롯한 양교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 내용으로는 △수업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전북 신규교사 및 저경력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센터 운영 참여 등이다.

또한 △봉동초의 초등 학교자유학년제 설계·운영 모델 개발 연구 협력 △봉동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한 공간 혁신 공동연구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환성 부설초 교장은 "봉동초와 부설초가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상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남덕 봉동초 교장은 "함께 성장하는 학습교류를 통해 수업 역량의 질적 강화 및 전문성 신장에 힘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부설초와 학교교과목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서, 찾아가는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28일 상동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30명을 상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들어 노인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등을 일일이 찾아가니며 교통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인전동차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당부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김대환 기자



순창경찰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합동회의 개최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28일 경찰서 내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생활안전교통과장 주관으로 가능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웃간 불화로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민원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관리방안과 추가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결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위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앞으로도 가능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작년 이어 올해도... 교수 중창단 공연 '눈길'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신입생 입학식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신입생 입학식에서 열린 교수 중창단 공연이 큰 화제를 끌었다.

이에 따르면 28일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인문콘텐츠대학 입학식은 200여명의 신입생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배 총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했다.

이후 무대에 오른 교수 중창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연을 선보이며 감동을 줬다.

한편 2부 무대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꾸며져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와 중앙동아리의 입학 축하 노래와 춤이 펼쳐지며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의 열정과 사랑을 한껏 전해주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참석한 한 신입생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래와 춤을 준비해 주셨다니 놀랍고, 교수님 공연뿐만 아니라 입학식 자체가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다른 신입생은 "신입생을 환영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교수님과 선배들의 도움 속에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인문콘텐츠대학 안정훈 학장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리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나아갈 시간을 기대한다"며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군,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박차

청소년운영위원·지도자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가져

완주군이 '2024년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을 열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격려하고, 참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완주군은 최근 완주군미래행복센터에서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센터 교래 등 3개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들과 지도자들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의미, 활동 사례, 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회의 운영 방법 등이 교육됐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공동체성 형성과 민주시민 교육, 청소년 모의투표를 접하며 친목을 다졌다.

신임 청소년위원은 "나와 관련된 일에 내가 관여를 하



는 것이 참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청소년운영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장수경찰서, 명예퇴직자 간담회 가져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감 김기하 등 3명에 대한 명예퇴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명예퇴직자는 장수파출소 장수파출소 경정 김기하, 계북파출소 경정 배병구, 경무과 행정관 전정숙 등이다.

이번 퇴직자 간담회는 별도의 행사없이 경찰서장과의 간담회, 기념패·꽃다발 증정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명예퇴직한 경감 김기하는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31년간 재직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며, 동료직원들은 명예퇴임을 축하하며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하는 선배 경찰관들을 배웅했다.

김기하 경감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와 후배경찰관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는 경찰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경



할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홍훈 서장은 "오랜 세월동안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퇴직하신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제 2의 인생 첫걸음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경찰서, 노인·장애인 복지관서 봉사 펼쳐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지난 27일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장수경찰서 직원 10명이 참석해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수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두드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드림 봉사활동'은 △배식 봉사활동 △환경정화 활동 △농촌 일손 돕기 △정보통신 수리 등 재능기부를 실시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점심시간에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배식을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또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김제경찰서(서장 백형석)는 28일 경찰서 3층 모악홀에서 백형석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새롭게 위촉된 경찰발전협의회 김운권 협의회장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김제경찰 추진 사항 홍보 △삼반기 경찰 정기 인사발령 사항 알림 △감사패 및 위촉장 전달 △김제경찰서 주요 치안활동 소개 △공공체치안 활성화 방안 등 김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석자 모두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기전대, 스텝 전주센터와 취업지원 협약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8일 스텝 전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내 청년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활용하고, 또 지속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취업 지원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현장활동 강화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 차지경찰에서는 아동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 20명을 관내 주요 초등학교에 배치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기본업무, 행동수칙, 상황별 대처요령 등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거쳐 치안보조 인력으로서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학교 주변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관, 퇴직교사 등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 아동의 이용이 많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등하굣길 교통 안전지도 등 아동안전을 위한 순찰·예방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규운 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임실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따뜻한 봄이 가까워져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3월에 동결되었던 지반이 기온 상승과 함께 녹기 시작하며 공사장 또는 건축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주변환경으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건축물 주변 응벽·축대 균열 확인 △낙석 발생 위험 지역 주의 △경빙 지역 등 출입 금지지역 진입 및 취사·음주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주=전문호 기자

남원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는 최근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28일 전했다.

남원소방서는 지난 28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저수지·낙서터 주변 간이구조장비 정비 및 점검 △해빙기 취약지역 출동률 및 현지 적응훈련 실시 △순찰차, 펌프차 등을 활용한 사일렌트 쿨링 및 안내방송에 따른 위험지역 주민대피 조치 및 출입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해빙기는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and a list of regional offices with phone numbers.